

윤길상 단장에게 듣는
지역뿌리기술사업단의 내일

대한민국 뿌리산업의 중심에서 더 큰 내일을 바라보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 R&D 역량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생기원 조직개편
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뿌리
산업기술연구소 산하에 신설된 지
역뿌리기술사업단이 큰 주목을 받
았다. 전국 지역에 분산된 뿌리기술
지원센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
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뿌리기술사업
단. 지역 뿌리기업의 맞춤형 기술지
원 강화를 통해 전국의 뿌리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뿌
리산업의 중심에서 더 큰 미래를 그
려나가는 지역뿌리기술사업단 윤길
상 단장을 만나보았다.

Q. 지역뿌리기술사업단 설립 배경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0년 정부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대책 위원회의 핵심 주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연계성이 높고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짓는 ‘뿌리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기여도가 부각되지 않아 뿌리산업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에 이를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생산기반기술’이 모든 생산에 뿌리가 되는 기술이라 하여 ‘뿌리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의 6개 분야를 뿌리기술로 지정, 새로운 법 제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뿌리산업 육성 및 정책 제정에 있어 생기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인천의 뿌리산업기술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10개 지역에 뿌리기술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각 뿌리기술센터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나 각 지역에 분산됨에 따라 통합관리의 어려움을

느껴 컨트롤타워의 성격으로 지난해 3월, 지역뿌리기술사업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뿌리기술센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Q. 뿌리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봤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뿌리산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를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쉽게 말해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기반 산업입니다.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초 공정산업을 뜻하는데, 이를 6개 분야로 나눈 것이 바로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입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차량 1대를 생산할 때 뿌리산업 관련 비중이 약 90%(2만5천 개)를 차지할만큼 뿌리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뿌리기업을 살펴보면 99.9%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 역시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공, 조선, 자동차, 나아가 정보기술(IT) 등 전 산업에 걸쳐 뿌리산업이 기반이 되는 만큼 이를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